

KIA 김종국호가 남긴 숙제는 '부상 관리'와 '이닝'



김종국호의 두 번째 시즌은 '부상 관리'와 '이닝'이라는 숙제를 남겼다.

KIA 타이거즈가 17일 챔피언스필드에서 NC 다이노스를 상대로 2023시즌 최종전을 치렀다.

시즌 막판까지 전개됐던 순위싸움에서 밀리면서 '144경기'에서 끝나는 KIA의 2023시즌.

최종전에 앞서 김종국 감독은 "부상도 있고 부진한 선수도 있지만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144경기 다 온 것 같다. 잘 버텨줘서 여기까지 온 것 같다"며 "포스트 시즌 못 나간 게 죄송할 따름이다"고 밝혔다.

시즌을 돌아보면 가장 아쉬운 부분은 부상 관리다. 김종국 감독은 "부상 관리를 잘 못했던 것 같다. 부상 관리 잘했어야 하는데 못한 부분이 아쉽다"고 언급했다.

타선의 핵 나성범이 좋아리 부상으로 시즌 출발이 늦어졌고, 김도영도 두 번째 경기 만에 발가락 골절 부상을 당하면서 오랜 시간 자리를 비웠다. 시즌 막판에는 박찬호가 손가락 인대와 손목 골절 부상으로 무너졌다. 나성범과 최형우도 각각 햄스트링과 쇄골 골절로 시즌 아수룩했다. 어려운 팀 상황 속 주축 선수들에게 집중된 역할 속에 연달아 나온 부상이라 '관리'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이닝'도 올 시즌 풀지 못한 숙제가 됐다.

주전들 잇단 부상에 PO 좌절되고 선발진은 이닝 소화 능력 떨어져 운영철·임기영 등 활약은 성과 최종전 마치고 오키나와 캠프 준비

김종국 감독은 "선발 투수들 템스를 더 쌓아놓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선발 템스가 아쉽다"고 덧붙였다.

선발진 문제는 결국 부상관리와 부상에도 흔들리지 않는 전력 만들기가 중요하다. 또한 확실한 외국인 투수가 절실하다.

김종국 감독은 "외국인 선수들에게 이닝을 부탁했는데 이닝 소화 능력이 많이 떨어진 게 아쉬웠다"고 언급했다.

더 높은 곳에서 2024시즌을 보내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선수 운영을 통한 부상관리와 부상에도 흔들리지 않는 전력 만들기가 중요하다. 또한 확실한 외국인 투수가 절실하다.

아쉬움이 더 많이 남는 시즌이지만 성과도 있었다.

김종국 감독은 "돌아보면 선발 (윤)영철이가 신인이었지만 자기 몫을 신인답지 않게 잘해냈다. 초반에 불펜 투수들 부진한 부분은 있었는데 시즌 하면서 자기 기량이 올라온 것 같고, 불펜에서 여러 선수가 나왔다. 타선에서도 전 시즌보다 더 좋았던 선수도 나왔다. 아수에

서 부상 선수가 나왔지만 전체적인 템스를 더 끌어오르지 않았나 생각한다. 포수에서는 한준수가 가능성을 보여줬다. 내년엔 더 기대가 되는 선수다"며 "내년 시즌에는 전체적으로 준비를 잘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투·타에서 알토란 같은 활약으로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준 선수로는 임기영과 이우성을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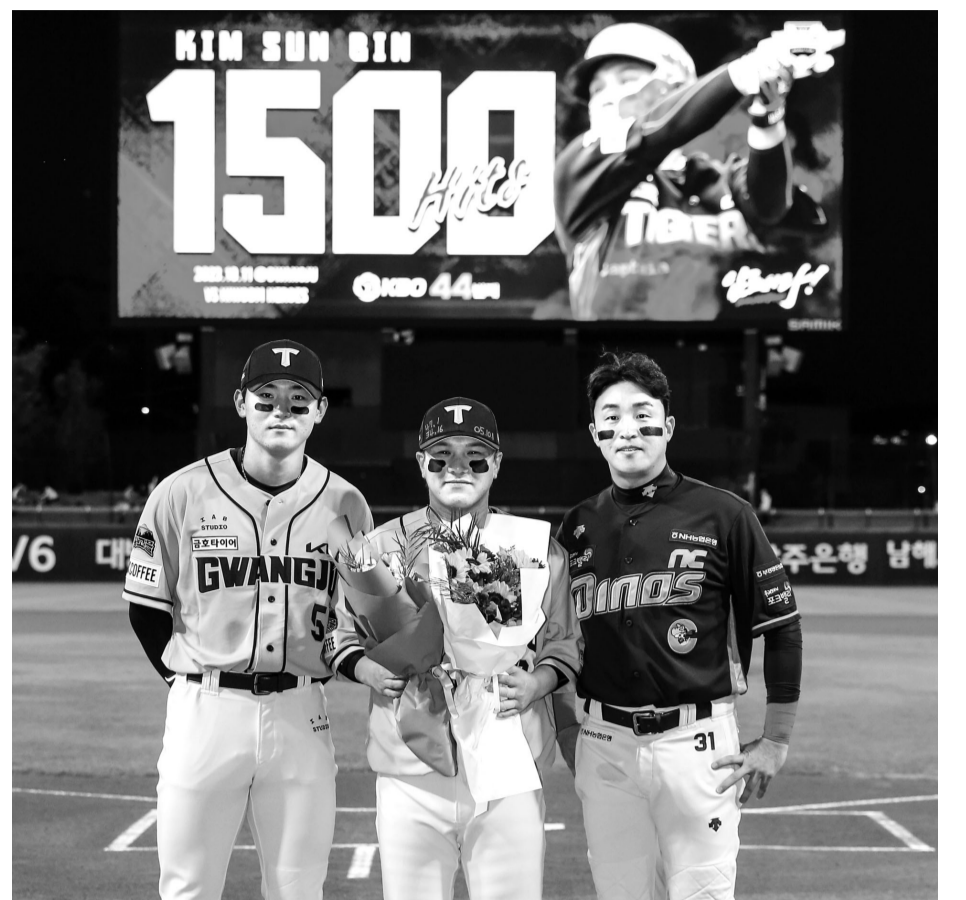
김종국 감독은 "임기영이 불펜에서 잘해냈다. 기대를 많이 안 했었는데 최지민이 자기 몫 잘해냈다. 타석에서는 이우성이 있다. 부상자가 나온 시즌 초반에 성범이 몫을 너무 잘해줬던 것 같다. 김선빈이 부상 참고 끝까지 해줬다는 점 등 다른 선수들도 좋았던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일찍 시즌을 마무리한 KIA는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일본 오키나와에서 새 시즌을 위한 준비에 나서게 된다. KIA는 오키나와에서 마무리캠프를 소화할 예정이다.

김종국 감독은 "머칠 쉬고 마무리캠프 가기 전에 훈련을 소화할 예정이다. 캠프에 참가하는 대신 교육리그에 참가하는 선수도 있고, 쉬어야 하는 선수도 있다"며 "운영철도 오키나와 캠프 갈 예정이다. 피칭 보다는 밸런스 위주로 훈련을 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또 "APBC(아시아 프로야구 챔피언십) 엔트리가 안 나왔는데 명단에 포함된 선수도 캠프에 데려갈 생각이 있다. 훈련하면서 준비를 해야 부상 위험도 덜하고 경기력에도 좋을 것이다"고 남은 시즌 일정을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17일 챔피언스필드에서 2023시즌 최종전인 NC와 경기를 앞두고 KIA 김선빈의 KBO 1500경기 출장과 1500안타 시상식이 열렸다. <KIA타이거즈 제공>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전남도선수단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전경선 전남도의회 부의장, 박정현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등이 17일 신안비치호텔에서 결단식을 갖고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제공>

“고향 명예 빛내겠다” 전남 장애인체전 선수단 결단식

11월 3일 개막 앞두고 선전 다짐 김영록 지사 “기량 맘껏 발휘하길”

전남장애인체육회가 전남에서 열리는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전남선수단 결단식을 갖고 선전을 다짐했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는 17일 신안비치호텔에서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전남도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11월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목포종합경기장을 비롯해 도내 38개 경기장에서 31개 종목이 개최된다.

결단식에는 전남도장애인체육회장인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전경선 전남도의회 부의장, 박정현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관계자 및 선수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선수단 훈련영상 상을 시작으로 참가계획 보고, 단기 수여, 격려사 및 축사, 선수대표 선서,

격려금 전달 순으로 진행했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선수단장 김영록 도지사는 부단장인 박정현 상임부회장에게 선수단기를 전달하며 선수들의 선전을 당부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번 전국장애인체전에서 그동안 닦아온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200만 도민에게 감동과 용기를 줄 것이라 믿는다”면서 “선수 여러분께서 더욱더 좋은 환경에서 마음 편히 훈련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응원했다.

전남 장애인체육 선수단은 이번 전국장애인체전에 31개 전 종목에 총 745명(선수 458명, 임원 보호자 287명)이 출전한다. 14년 만에 전남에서 열리는 전국장애인체전의 종합성적 5위 목표 달성을 위해 훈련에 매진해왔다.

2022년 전국체전 금메달리스트인 배드민턴 유수영(한국장애인고용공단), 권현아(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이클 박슬기(한전KDN), 론볼 송명준(전남장애인체육회), 불링 이진미(한전KPS),

신백호(포스코ICT), 당구 정선정(대신기공), 탁구 이창식(한전KDN), 김은희(전남장애인탁구협회), 육상 이미옥(한전KPS), 조경화(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과 아쉽게 은메달을 땀던 사격 이윤리(한국농어촌공사) 등의 금메달이 기대된다.

단체 세부종목에서는 축구 뇌성마비가 4연패에, 여자 좌식배구와 골볼 남자는 작년에 이어 2연패에 도전한다. 전년도 종목 종합 1위를 차지한 카누, 배구팀은 올해 2연패 도전에 나서며, 축구, 골볼, 론볼 종목에서도 종합 1위를 노리고 있다.

올해 2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모사업으로 전남을 연고지로 창단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휠체어배드민턴팀'은 현역 장애인 국가대표선수 구성했다.

이와 함께 6월에 대한장애인체육회 공모사업으로 전남에 등지를 튼 '좋은운동장 육상팀'의 활약도 눈여겨볼 만하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김재열 국제빙상경기연맹 회장 한국 역대 12번째 IOC 위원에

유효표 73표 중 72표 찬성 선출

김재열(55·사진)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회장 겸 삼성경제연구소 사장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신규 위원으로 선출됐다.

김 회장은 17일(한국시간) 인도 뭍바이에서 열린 IOC 141차 총회의 신규 위원 선출 투표에서 유효표 73표 중 찬성 72표, 반대 1표를 받아 과반으로 신규 위원에 뽑혔다.

이로써 김 회장은 이기봉(1955~1960년), 이상백(1964~1966년), 장기영(1967~1977년), 김택수(1977~1983년), 박종규(1984~1985년), 김운용(1986~2005년), 이견희(1996~2017년), 박용성(2002~2007년), 문



대성(2008~2016년), 유승민(2016~2024년), 이기흥(2019년~) 위원에 이은 역대 12번째 한국인 IOC 위원이 됐다. 특히 삼성그룹 고(故) 이견희 회장의 사위인 김희장은 삼성가(家)의 대를 이어 국제 스포츠 외교의 정점에 있는 IOC에 입성해 각별한 이징표를 세웠다. /연합뉴스

광주FC 베카 '이달의 골' 수상

9월 울산전 발리슈팅 골

광주FC의 외국인 공격수 베카(사진)가 9월 이달의 골 주인공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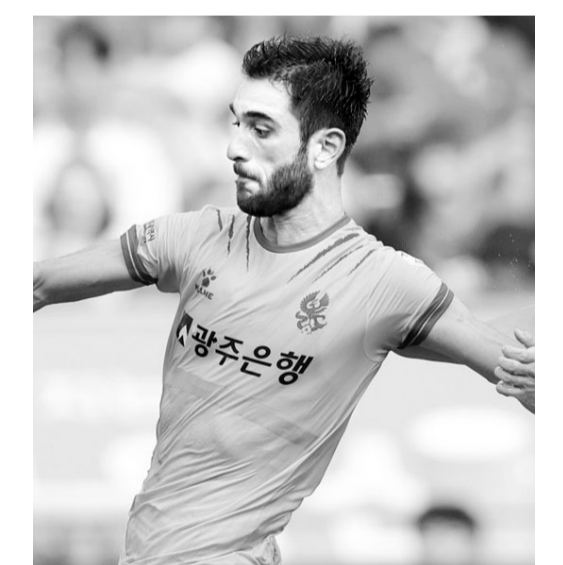
한국프로축구연맹이 17일 9월 K리그 '대자연의 동원생물 이달의 골' 수상자를 발표했다.

K리그1 29~32라운드 4경기를 대상으로 후보가 결정됐고 베카와 에르난데스(인천)가 각축을 벌였다.

베카는 9월 3일 진행된 29라운드 울산 원정에서 후반 9분 상대 수비수 맞고 굴절된 뜬 공을 그대로 오른발 발리슈팅으로 연결하면서 득점에 성공했다.

에르난데스는 9월 16일 30라운드 제주와의 홈경기에서 후반 추가시간 페널티박스 밖 왼쪽에서 중거리 슈팅을 날려 골대를 뚫었다.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팬투표가 진행됐고 베카가 3961표(59.2%)를 받으면서 2730표(40.8%)의 에르난데스를 따돌리고 '9월 이달의 골'을 차지했다.



베카는 오는 28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리는 인천과의 홈경기에서 앞서 진행되는 시상식에서 상금 100만원과 함께 트로피를 받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30일
- 2관 더 난 2
- 3관 익스펜더블 4, 기억해, 우리가 사랑한 시간
- 4관 엑소시스트: 믿는 자
- 5관 블루 자이언트
- 6관 30일
- 9관 퍼피 구조대: 더 마이티 무비, 세이 에스 여가인
- 7관 새내기들 친박사 퇴마 연구소: 설경의 비밀
- 8관 새내기들 1947 보스톤, 화란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3 GAC공연예술축제 그라제 「소란의 우리여행」
일시 : 2023-10-18(수)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33

2023 GAC공연예술축제 그라제 「크랙샷 'Rising Bullet」
일시 : 2023-10-19(목)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문의 : 062-613-8233